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둘째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강원지부	위두르어린이도서관	김효삼	저녁이면 눈 날 때마다 사라 스트리츠베리	위고	나는 눈을 깅고 전까지 수를 셀 거야. 그리고 몸을 풀리면, 다시 네가 있을 거야. "이제 센다. 하나님..."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여전히 나는	다비드칼리 글 모니카 바운오후의소묘	당신은 알까? 여전히 나는 그곳에 가. 하루도 빼침 없이.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평화풀풀은집 평화도서관	황수경	남아있는 모든 것	수 블랙	법의학자인 저자는 그 많은 주검들을 보며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살수 있었을까? 인간의 학계를 넘어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 그 해답이 마지막으로 그녀만의 해결방법을 소개해 놀은 글이 있다. 그녀의 내면에 문지방에 있었던 능장을 열었다. 자기만의 방을 설정해 그 방을 나올때 철저하게 잠궈놓는다는것을... 이런 그녀만의 자유방법이 나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아직도 사람의 할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졌다는걸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슈필리움작은도서관	장명숙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대	문학동네	구르더라도 부서지진 않았지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대조경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금씨의 의사>	노인경	문학동네	햇살이 눈부신 날입니다. 시집을 읽기기에 좋은 날이지요.....며칠 뒤, 금씨는 토끼들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극동부본작은도서관	이진영	감정호텔	리디아 브란코비치	책읽는곰	다양한 감정들이 겸시 머물다가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책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다율림작은도서관	박경자	츄먼디자인	라 우루 추	김영사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책이라 놀랍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다른 길로 가	피터H레이놀즈	우리학교	*삶이 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나요? 걱정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다른길로 가면 되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하평작은도서관	배수경	코끼리새는 땅에 난다.	신세은	바람의 아이들	타인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들의 삶에 녹여 넘지시 일러준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제주지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한 여름 밤의 꿈	쥘리엣 세익스피어	믿음사	책여우라는 암마동아리에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으니 재밌어요. 한가율, 한아름령 재밌는 소동에 빙자이다. 눈으로만 볼때와 다르게 소리내어 낭독하니 이해도 잘되고 재밌었다. 낭독의 재미에 빙진 엄마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충청지부	성성포른도서관	박민주	원색한 날들	예리 몰리번	마음산책	자연과 고독, 기쁨과 상실을 오가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부드럽게 말 건네는 찬란한 하루들의 기록.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폭풍이 찾아오는 땅	최경원	창비	주인공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 같은 일상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뻥겨져 나옵니다. 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빛나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거나 마음에 품고, 조금도 번하지 않은 내 친 문을 어는 순간을, "다녀왔어."라고 말하는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영	다정함이 인격이다	김선희	나무생각	생각과 관점, 욕구, 살아온 역사가 각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선 비판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대도가 중요하다. p103		